

제4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6. 6. 17(금) 14:00-14:3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 석 자 : 최병학의장, 김창남의원, 이원식의원, 최종석의원, 박연석의원, 가인숙의원,
차지선의원 , 이상 7명>

< 불참석자 : 이문선(덕중), 남용광(진성), 신동호(거성), 김호중 이상 4명 >

< 배 석 자 : 온형주 팀장, 권정만 팀장 이상 2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42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참석의원 7명으로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금강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안), 금강대학교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안), 금강대학교 학칙 개정(안),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안)을 심의하고자 이렇게 평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병학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강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안), 금강대학교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 온형주팀장 자료에 의한 설명]

최병학 의장 : 본 회의는 구조개혁이행과제의 일환으로 중장기 발전과 금강대학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관련 위원회 및 회의를 거쳐 거의 최종적으로 본 대학평의위원회에 상정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획서는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 오늘 회의는 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보다는 계획서에 대한 민주성을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의 최종 교무위원회 이하 각종 관련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선 의원 : 학생들 입장에서 최근 일련의 변화가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식 의원 : 중요한 것은 두 계획서 모두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 제시를 통해 향후 추진시 고려해야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계획서 안에 없다고 일을 하지 않고, 이 계획서안에 있다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숙 의원 :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배경은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와 부합되는 교육, 우수 지역 인재 유치와 진로교육 강화, 산학협력 강화, 대학 인문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의 목표 및 가치 재정립이며, 비전은 불교 중심 글로벌·융합 교육 대학이고, 교육목표는 융합교육의 요람, 실천적 지성인상 정립, 불교정신의 글로벌화이며, 핵심가치(전략)는 불교, 글로벌, 융합으로, 특성화 비전은 동아시아 제일의 불교 문화 교육·연구·산학협력의 허브대학으로, 특성화 목표는 불교 연구 선도 대학,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 인재 양성, 불교 응용·융합교육 강화이며, 특성화 핵심가치는 불교, 글로벌, 융합으로, 특성화 분야는 불교분야, 글로벌분야이며, 세부 추진 특성화내용은 불교 연구 & 불교학의 응용 & 불교학의 현대화 및 생태화, 불교와 친디아(Chindia) 시장 연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인재 양성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온형주 팀장 : 네, 맞습니다.

박연석 의원 : 제가 파악해 본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재정운영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의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Action Plan)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재정운영계획은 1단계(-2018)와 2단계(-2020)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설정, 대학운영의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의 법인전입금의 확대 및 안정적 유지를 통한 의존율의 지속적 감소하며, 등록금 수입의 지속적 증가, 기부금 수입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확대, 그리고 대외사업의 적극적 유치 등을 통한 수입 재원의 다변화와 재정 운영의 안정화에 매진을 내용과 기타 내용으로 대학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반영, 교육·연구 수월성 투자 지속을 위한 재원확보, 캠퍼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포함하며, 재원확보 및 운영 계획(재원다변화 및 운용수익 계획)의 핵심 사항은 법인 전입금의 안정적 확보 및 비율의 지속적 감소이며, 재정의 효율화 및 내부역량 강화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와 정책예산의 도입과 수입 다변화 노력을 통한 수입구조 개선은 재원 확보(다변화) 및 수입 구조 등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온형주 팀장 : 네, 맞습니다.

최종석 의원 : 이원식 의원의 말씀처럼 계획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보다 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면, 본 계획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병학 의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체참석의원 : 네 없습니다.

최병학 의장 : 그럼, 다음으로 학칙 및 학사내규에 대한 개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인 교무지원팀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지원팀 박연석팀장 자료에 의한 설명]

최병학 의장 : 사실 지난 4월 1일에도 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식 의원 : 네 그랬습니다만 이는 구조개혁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개혁기이고, 변혁기입니다. 개혁과 변혁,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번잡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지선 의원 :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제도의 여러 가지 변화가 당장은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의 영향력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과 직원분들까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석 의원 : 저는 평의원회 의원이면서도 교무지원팀 팀장입니다. 이번 학칙 개정과 학사내규는 구조개혁이행과제의 내용으로 수업관리 개선과 학생 평가의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남 의원 : 좀 더 부연해 살펴보면, 학칙 개정은 휴업일의 기준을 정확히 하고, 성적평가의 기준과 재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학사내규의 경우에는 학칙 개정에 따른 신입생의 전공 선택 명시, 직제개편에 따른 교무지원처 변경, 성적 정정 절차의 명확화와 성적 경고자 구제 방안 명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원식 의원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혁이행과제로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무 및 학적 등 학사관리의 철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인숙 의원 : 이러한 학사관리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부설연구소 신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석 의원 : 맞습니다. 중국문제연구소로 중국 동향 파악 등 기본적인 중국관련 연구는 물론이고, 본 대학의 불교 특성화 연계하고자 총장님이 신설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 : 학칙의 문맥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칙 제47조 3항의 경우와 학사내규 제8조, 제15조, 제16조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장 : 검토해보니 문맥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참석 의원 : 없습니다.

최병학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한 안건의 문맥을 수정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 의원 : 동의합니다.

최병학 의장 : 동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42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니다.>